

〈포의교집(布衣交集)〉의 ‘초옥(楚玉) 서사’ 구성 과정 연구

— 초옥에 관한 풍문(風聞)들을 중심으로 —

이주영*

— <차 례> —

1. <포의교집>과 ‘초옥 이야기’
2. 초옥의 내면과 포의지교의 구성 과정
3. ‘초옥’이라는 소문: 서사에 개입하는 전언과 풍문들
4. 잔치와 전란 사이: 풍문, 서양 바람, 그리고 초옥

〈국문초록〉

이 논문은 <포의교집>의 서사를 ‘초옥에 관한 서사’라고 규정하고, 그것이 구성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초옥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진정한 선비와 포의지교(布衣之交)를 맺고 자신의 시재(詩才)를 인정받기를 열망한다. 이 열망은 역사서와 유교 경전(經典), 시집, 전기(傳奇)소설 등 한문(漢文) 교양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궁녀로서의 이력과 허난설헌(許蘭雪軒) 같은 여성 시인에 대한 선망이 그녀의 내면에 영향을 끼치고 정체성을 형성했다.

초옥과 이생의 사귀에는 주변인들의 전언(傳言)과 풍문(風聞)이 개입한다. 이를 통해 초옥의 시재(詩才), 초옥의 언행, 초옥을 둘러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다. 외모와 재주가 뛰어난 초옥은 사람들의 시선과 말 속에서 이미지가 규정되고 구성되며, 이를 통해 ‘초옥에 관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전언과 풍문에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으며, 이생은 초옥에 대한 거짓말을 믿어버리기도 한다. 주변인들은 주인공들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기도 하고 이들의 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다. 장사선(張士先)은 이 중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다. 초옥은 유부녀의 처지로 이생과는 거리낌없이 사귀었으면서도 젊고 부유한 중약의 구애는 거절하고 남편에게 항거해 자살까지 시도한다. 초옥에 대한 소문은 서울 시정(市井)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된다.

이생과 초옥은 고종(高宗)과 민비(閔妃)의 가례(嘉禮)를 준비하던 예조(禮曹)의 뜰에서 재회한다.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령(女伶)으로 뽑혀와 정절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초옥을 이생이 구해준다. 초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생들과의 문답을 통해 이생과의 만남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사람들은 초옥의 외모와 재주, 태도를 칭찬하고 감화(感化)된다. 그러나 이 직후 서양 오랑캐의 침입, 즉 병인양요(丙寅洋擾)의 혼란 속에 초옥의 소식이 끊기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1864년 6월부터 1866년 6월 사이의 서울이라는 독특한 시공간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이 시기는 500년을 이어온 조선이 내부의 체제 정비와 서구(西歐)의 침략에 의해 변화를 겪던 시기이다. ‘초옥 서사’는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지난 시기 조선을 지탱해오던 가치관에 균열이 생긴 것을 드러내는데, 이 작품의 창작은 ‘초옥 이야기’의 또 다른 형식으로서 전언과 풍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 <포의교집(布衣交集)>, 초옥(楚玉), 포의지교(布衣之交), 전언(傳言), 풍문(風聞), 19세기, 서울

1. <포의교집>과 ‘초옥 이야기’

<포의교집(布衣交集)>은 19세기 후반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중편 한문소설로, 1998년 소개된¹⁾ 이후, 인물 형상²⁾, 남녀애정 양

1) 이승복, 『한문소설 <布衣交集>의 인물 형상과 소설사적 의의』, 『규장각』 21, 1998.

2) 대표적인 연구들을 제시한다. 조혜란, 『<布衣交集> 여성주인공 초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2001; 윤채근, 『『포의교집』에 나타난 근대적 욕망 구조 - 안티고네적 희생과 히스테리 사이-』, 『청람어문교육』 35, 2007; 정환국, 『『楚玉』과 ‘웅녀’ - 19세기 비극적 자아의 초상』, 『한국문학연구』 33, 2007; 김수연, 『<포의교집> 주인공 초옥의 反烈女적 성격』, 『고소설연구』 31, 2011.

상³⁾, 전기(傳奇)소설의 변모⁴⁾와 소설사적 의의, 세대반영적 면모⁵⁾ 등과 관련해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사랑에 적극적인 여성인물과 시의 삽입 등 애정전기의 요소를 계승하고는 있지만, 전기성(傳奇性)이 사라진 자리에 현실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둔다. 전기소설 전통의 끝자락에서 이전 작품들을 패러디하거나 그 문학적 관습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떠한 작품과도 인물 형상이나 서사 구성 등에서 비슷한 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⁶⁾

-
- 3) 권도경, 「『포의교집』의 애정갈등과 비극적 결말의 현실적 의미」, 『국어국문학』 132, 2002; 조혜란, 「19세기 애정소설의 새로운 양상 고찰 -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5, 2003; 박일용, 「<포의교집(布衣交集)>에 설정된 연애 형식의 전복성과 역설」, 『고소설연구』 37, 2014.
- 4) 신상필, 「한문소설 『布衣交集』 연구」, 『한문학보』 3, 2000; 한의승, 「『布衣交集』의 문체와 서사적 특징」, 『어문론총』 41, 2004; 이정원, 「『布衣交集』의 서사적 성격」, 『어문연구』 36, 2008; 신상필, 「傳奇小說의 일상성과 내면용시를 통한 조선후기적 변주」, 『대동한문학』 35, 2011.
- 5) 김경미, 「서울의 유평적 공간 해체와 섹슈얼리티의 공간화 - 19세기 소설을 중심으로 -」, 『고전문학연구』 35, 2009; 김문희, 「<절화기담(折花奇談)>과 <포의교집(布衣交集)>에 재현된 한양과 사랑의 의미」, 『서강인문논총』 26, 2009; 이지하, 「고전소설에 나타난 19세기 서울의 향락상과 그 의미」, 『서울학연구』 36, 2009.
- 6) <포의교집>의 패러디적 성격을 다룬 대표적 논의로는 김정숙, 「<포의교집>의 소설적 특징과 전기소설 패러디적 면모」,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과 통속적 한문소설』, 보고사, 2006; 윤재민은 <절화기담(折花奇談)>과 <포의교집>의 주제의식은 전기소설에서 보이는 '사(士)계층 문인지식인의 꿈과 원망(願望)의 표현'으로 환원시킬 수 없으며, 전기소설의 패러디이자 그 극복이라 이름할 만하다고 하였다. (윤재민, 「조선(朝鮮) 후기(後期) 전기소설의 향방(向方)」, 『민족문학사연구』 15, 1999, 29쪽 참조); 정출현 역시 거의 모두 과격한 패러디를 실험하고 있었던 19세기의 전기소설 작품들 중 <포의교집>과 <절화기담>은 전기소설에 대한 비판적 패러디의 성취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정출현,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 『국제어문』 38, 2006, 59쪽 참조); 김경미는 <포의교집>이 기존의 애정전기나 영웅소설의 틀을 벗어나 유부녀와 유부남의 사랑, 다른 애정전기와 달리 결혼 유무에 얽매이지 않는 초옥의 태도, 돌연한 이별에 대해 새로운 문제 설정을 시도했지만, 이는 미완의 플롯으로 끝나며 그 파격성을 소설 형식으로 소화해 내지 못한 결과로 보

이 작품의 독특한 서사는 외모와 재주가 뛰어난 하층여성과 보잘것없는 양반남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인물 배치에서 출발한다. 앞뒤로 서술자의 평이 있으며 서술자가 견문한 것을 서술하는 듯한 3인칭 시점인데도, 이생(李生)이 초반부터 등장하고 그의 생활이나 동선을 따라 서사가 전개되며 그의 내면이 종종 직접적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언뜻 보면 전기 소설의 관습을 따라 문인지식인인 이생의 욕망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극적으로 욕망을 표출하고 실현하는 인물은 초옥(楚玉)임을 알 수 있다. 첫머리에서부터 언급되는 ‘지음(知音)’과 ‘포의지교(布衣之交)’는 바로 초옥이 추구하는 바이며,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한문(漢文) 교양을 바탕으로 이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선다. 즉 이 작품은 초옥의 욕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사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주인공이 초옥인데도 불구하고 초옥의 내면이나 그녀가 겪는 일들은 그녀의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즉 초옥이라는 인물은 다른 등장인물들의 시선과 말을 통해 서술되며, 초옥 서사는 등장인물들의 입에서 구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또 주변인들은 초옥과 이생의 사귀에 대해 평하기도 하고, 주인공들의 언행이나 그를 둘러싼 사건의 전말을 전해주기도 하며, 이를 통해 이 남녀 관계에 간섭하고 개입하여 사건을 일으키고 서사를 확장시키기도 한다. 즉, 초옥의 열망만이 서사의 주된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전언(傳言)과 초옥에 대한 시정(市井)의 풍문(風聞)도 서사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이것은 1864년 6월부터 1866년 6월 사이의 서울이라는, 시공간적으로 구체성 및 일상성을 지닌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포의교집>에 대한 문학적 이해를 더 풍부히 하기 위해,

인다고 하였다.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쟁점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23, 2011, 351쪽 참조.)

‘초옥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초옥의 이력과 그녀가 지은 시, 인용되는 전고(典故)들을 중심으로 그녀의 내면과 정체성, 또 포의지교의 구성 과정을 탐색한다. 이는 초옥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를 추적해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초옥에 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의해 규정되고 시정의 소문으로 재생산되는 ‘초옥’에 주목하여, 주변인들의 전언과 시정의 풍문을 통해 ‘초옥 이야기’가 전개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 초옥에 대한 소문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서술한 것처럼 끝맺고 있는 결구 부분을 통해 볼 때 이 작품의 창작이 또 다른 전언과 풍문에 해당하는 것임에 주목하고, 이러한 특징이 19세기 후반이라는 독특한 시대와 관련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초옥의 내면과 포의지교의 구성 과정

초옥의 내면, 그리고 초옥 자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축조되었는가? 초옥은 이생처럼 그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초옥의 말, 초옥의 시와 사(詞)와 편지, 당할멈[堂婆]과 달금(達金), 씨동(氏同) 등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서사를 재구성해 보아야 한다.

열일곱 살인 초옥은 이생의 친구 장진사(張進士)댁 행랑에 사는 양씨(楊氏)집 며느리로, 그녀의 내력은 당할멈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 초옥은 본래 남영위궁(南寧尉宮)의 시비(侍婢), 즉 궁녀였다가 지금의 시아버지인 양씨에 의해 속랑(贖良)되어 양씨의 아들과 혼인한다. 초옥이 궁녀에서 하층남성의 아내가 되기까지는 사연이 있었다. 초옥은 자신을 사모하던 미소년을 끝내 만나주지 않았는데, 죽은 소년의 혼이 늙은 궁녀

에게 붙어 초옥을 마구 때리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궁녀를 사모하는 미소년 이야기는 <운영전(雲英傳)>과 <상사동기(相思洞記)>에서 보듯 이미 낯익다. 그런데 궁녀라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사랑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두 작품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초옥은 냉정한 자세로 일관하여 소년을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앞의 두 작품은 궁녀와 젊은 유생(儒生)의 사랑을 통해 자연스런 감정의 발현인 남녀의 애정을 억압하는 중세적 이념과 틀을 문제삼고 있다.⁷⁾ 이에 반해, <포의교집>에 삽입된 이 일화는 초옥이 양소부(楊少婦)가 된 내력, 즉 빙의된 늙은 궁녀의 폭력이라는 극단적이고 기이한 상황에 몰려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녀의 차갑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포의교집>에는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전개, 분위기 묘사 등을 보여주는 삽입시가 고루 나타나는데⁸⁾, <상사동기>의 영향은 삽입시에서도 감지된다. 초옥과의 사이가 멀어진 후 이생이 초옥에게 이백(李白)의 사(詞)를 써서 보냈을 때, 초옥이 화답한 편지와 시는 <상사동기> 속 영영(英英)의 편지 및 시의 형식과 비슷하며 또 그 일부를 끌어온 것이다.⁹⁾

초옥의 시가 여러 편 등장하는 것은 초옥의 시재(詩才)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초옥은 시를 지어 사랑과 이별, 고독과 그리움을 그리지만, 또 자신에 대한 이해나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때 주목

7) 이상구 역주, 『해제』, 『17세기 애정전기소설』, 도서출판 월인, 2003, 23쪽.

8) 전 시기 전기소설인 <상사동기>에 12편, <최척전(崔陟傳)>에 2편, <동선기(洞仙記)>에 1편이 삽입되어 있을 뿐인 데 비해, <포의교집>에는 편지에 실린 것을 포함해 모두 35편의 시가 삽입되어 있다. 초두와 말미에 각각 한 편씩 배치하였고, 초옥이 14편, 이생이 5편을 지었으며, 작품 말미에 기생들이 등장하여 읊거나 부른 시가 6편, 작품 곳곳에 상황이나 분위기를 묘사하는 시가 6편 나온다. (하성란, 『布衣交集』의 삽입시 연구, 『한국문학연구』 38, 2010, 195쪽 참조)

9) 하성란(2010), 앞의 논문, 202~205쪽 참조.

해야 할 것은 거칠고 무식하여 소통하기 어려운 남편을 바라보는 초옥의 불만어린 시선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이라는 낯익은 이름을 마주하게 된다. 초옥에게 허난설헌은 어떠한 존재였던가? 우선, 난설헌의 본명인 초희(楚姬)를 본뜬 것 같은 '초옥(楚玉)'이라는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하다. 그녀가 궁녀로 지낼 때 쌓은 한문 교양 중에는 시를 읽고 짓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때 조선의 대표적인 여성시인인 허난설헌을 공부하게 된다.¹⁰⁾

“제가 어려서 남영위택의 별가를 모셨는데 그분은 여자 시인으로서 제게 재주가 있다고 여겨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통감』, 『사략』, 『시전』, 『효경』, 『고문』 등의 책을 외우지 않은 게 없었고, 고시에 대해서도 때때로 논했는데 우리나라의 『난설헌집』은 지금도 입에 익숙하답니다. 저의 마음에는 문장 잘하는 선비를 만나 밤낮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일생을 보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크게 잘못되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단을 만나려다 베를 만난 격이 되어 이렇게 영락하게 되었습니다. …”¹¹⁾

초옥은 문장지사(文章之士)를 만나 담론하며 일생을 보내고자 했으나,

10) 신상필은 초옥의 난설헌 차용에 대해 여성 시인들에 대한 조선후기적 관심의 서사문학적 반영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당대 시문풍의 기류까지 호흡한 현실적 정황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신상필(2011), 앞의 논문, 92~93쪽 참조.)

11) 변역문과 원문은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 - 절화기담, 포의교집』 (개정판), 도서출판 여이연, 2016.(초판 2003)을 인용한다. 『포의교집』, 125쪽. “妾幼時, 侍於南寧尉宅別駕, 別駕以女中詩人, 謂妾有才, 教之不忘, 妾是以通史及詩傳孝經古文等書, 無不誦傳, 古詩亦往往持論, 而我國蘭雪軒集, 至于今口習耳. 妾情願得一文章之士, 晝夕談論, 以送一生矣. 事乃有大謬不然者, 擇錦而逢布, 如是流落. …”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궁에서 나와 영락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이생과 처음 대화를 나눌 때 “… 사대부가에 나면 반드시 우아한 숙녀가 되고, 여염집에 나면 그저 그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용모와 덕이 부족해서 그렇겠어요? 처지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¹²⁾라고 말했던 초옥은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잘 알고 있다. 처지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비애¹³⁾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느끼는 고독감이 이생이 아닌 초옥에게서 강렬하게 감지되는 것이다.

여러 시집 중 『난설헌집』을 입에 익숙하도록 외웠다는 초옥의 말을 통해서 그녀가 허난설헌에 대한 유대감을 가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천재 시인에 대한 선망(羨望)이 깔려 있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난설헌의 동생 허균(許筠)이 언급했다고 전해지는 ‘난설헌이 그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의 남편은 인물이나 학문에서 난설헌에게 훨씬 못 미쳤다’는 소문, 즉 한 천재 여성시인의 ‘불행한’ 삶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여기에는 난설헌의 자(字)인 ‘경번(景樊)’을 두고 그녀가 번천(樊川), 즉 당대(唐代) 시인 두목지(杜牧之)를 연모해 붙인 것이라면서 ‘못난 남편을 이별하고 뛰어난 남성을 만나고자 한다’라는 의미로 추측하는 등 난설헌 당대부터 조선 후기 내내 회자되었던 불운한 소문들까지도¹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초옥 역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피하려 “… 이제 낭군께는

12) 『포의교집』, 116쪽. “… 生乎士大夫宅者, 必爲閑雅之淑人, 生乎匹夫家者, 必爲糟糠之傭婦. 豈貌德之不相及哉? 使處地而然也.”

13) 하성란은 초옥이 허난설헌의 시를 차용하면서 변형한 구절들을 분석하고, 초옥이 허난설헌에 대한 유대감뿐만 아니라 출신의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다고 하였다. (하성란(2010), 앞의 논문, 207~214쪽 참조.)

14) 허난설헌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서는 홍인숙, 『난설헌이라는 ‘소문’에 접근하기 - 유선시(遊仙詩)의 정신분석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2003, 147~154쪽. ; 이숙인, 『갈등하는 기억과 상상 - 역사인물 허난설헌(1563~1589)』, 『여/성이론』 25, 도서출판 여이연, 2011, 207~208쪽을 참조.

두목지 같은 풍채, 손백부 같은 젊음도 없고, 또 왕씨와 사씨처럼 귀한 것도, 범여와 석송처럼 부유한 것도 아니시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음란함을 좋아하거나 돈을 좋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¹⁵⁾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초옥이 짓는 시가 이생보다 많으며 또 대부분 차용을 하고 있는 것은 독특하다. 초옥이 이생에게 보냈던 시들은 난설현의 『소년행(少年行)』과 『견흥(遣興)』, 『기하곡(寄荷谷)』, 『기여반(寄女伴)』, 『효심아지체(效沈亞之體)』 등을 차용한 것이다. 이생이 초옥에게 추파를 던지자마자, 초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생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를 쓴다. 초옥은 이생에게 “다행히 낭군을 만나 그동안 쌓아온 것을 다 기울여 변변찮은 문장을 대략 보여드린 것이지요”¹⁶⁾라고 말한다. 그녀가 열망하는 것은 포의 지교라기보다도 자신의 시 짓는 재주를 드러내고 남에게 칭찬을 받는 것일지도 모른다. 허난설헌의 차용에서 보듯 초옥의 감정은 모방된 감정이며, 초옥이 이생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비의 사귀를 욕망하는 것¹⁷⁾을 보여준다.

공부가 부족한 이생은 도리어 초옥이 쓴 편지의 ‘소처(蘇婁)의 부탁’이라는 구절의 뜻을 물어보고, 초옥은 『사기(史記)』의 『소진열전(蘇秦列傳)』을 읽지 않았냐고 반문한다. 그녀는 소진의 아내와 소진의 고사를 자신과 이생의 관계에 대입시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생에게 이 구절을 설명하는 초옥은 활기에 가득 차 있다. 이생은 그녀의 열정에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 중 하나는 두 사람이 처음 잠자리를 가진 날인

15) 『포의교집』, 130쪽. “… 今郎君既無杜牧之之風彩, 孫伯符之年記, 又乏王謝之貴, 范石之富, 而妾之有此行, 非貪淫樂貨之類也. …”

16) 『포의교집』, 125쪽. “… 幸逢郎君, 欲罄所蘊, 故, 略示微章. …”

17) 김경미(2009), 앞의 논문, 201쪽 참조

음력 7월 16일이 소동파(蘇東坡)가 『전적벽부(前赤壁賦)』를 지었던 날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적벽부』의 ‘望美人兮天一方’이라는 구절을 말하면서 초옥과 함께 있는 자신의 처지가 소동파보다 낫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생이 과연 낙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자 곱디고운 양파는 말과 얼굴빛이 거듭 변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미 7월 16일에 만났으니, 다시 10월 설당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합시다. 그래야 소동파가 우리를 보고 비웃지 못하겠지요.”¹⁸⁾

초옥은 이생의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소동파가 10월에 후적벽부(後赤壁賦)를 지었던 것을 상기시켜 다시 만날 약속을 삼고자 한다. 그러나 과거에 낙방한 이생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다. 이것 역시 소동파에 대한 형식적인 차원의 모방이지만, 그것을 통해 문학적 지식을 나누고 포의의 사قي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초옥에게는 매우 절실한 것이었다.

글로만 배운 지우(知遇)와 포의지교에 대한 초옥의 관념적 이해는 곧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 행동과 태도가 과잉된 것이며 과시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이생이 남들에게 들킬까 당할뎡을 통해 서만 초옥에게 연락을 도모하는 데 반해, 양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아무때나 이생에게 편지를 던지고 간다. 초옥은 간통한 것을 추궁하는 남편에게 항거하고 이생에 대한 정절을 지키듯 다른 선비들은 거절한다. 두 사람의 밀회를 시아버지에게 들켰을 때도 초옥은 웃으며 “상관없어요. 제가 낭군과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18) 『포의교집』, 149쪽. 李生果不能參榜, 乃促鄉裝, 而妍妍楊婆, 辭色累變, 乃曰: “既有七月既望之逢, 則復有十月雪堂之約, 然後, 庶不使蘇東坡更笑也.”

그러니 무슨 변고가 생기겠어요?”¹⁹⁾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초옥은 남편에게 두 번째로 간통을 추궁 당하자, 오히려 제 목을 찌르고 우물에 몸을 던지며 목을 매기도 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등 몸에 대한 훼손과 자살을 시도한다. 이는 시아버지와 친정어머니도 말릴 수 없을 만큼 극렬한 것으로, 전형적인 조선후기 열녀전(烈女傳)의 내용처럼 묘사된다. 하층의 여성이 남성들에게 상시적으로 성적인 위협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가졌던 정절 관념이라 보더라도, 그녀의 항거가 남편을 향해 있다는 것은 역시 특이한 지점이며 열녀전을 향한 비틀기로도 읽힌다. 열녀의 포즈를 내면화하고 있는 초옥의 모습은 정절(貞節)에 대한 독특한 윤리를 피력하는 동시에, 본래 지독한 것으로 서술되는 그녀의 성격적 특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진정성'을 수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못 비극적 정조를 띠기까지 한다. 이생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찾아가 백이(伯夷), 비간(比干), 도척(盜跖)과 함께 『전등신화(剪燈新話)』 <애경전(愛卿傳)>의 여주인공 애경의 죽음을 거론하며 명분에 어긋난 초옥의 죽음을 말한다. 이에 대해 초옥은 “... 저는 기필코 녹주와 벽옥의 일을 본받아 죽더라도 후회를 남기지 않겠습니다.”²⁰⁾라고 답하는데, 녹주(綠珠)와 벽옥(碧玉)은 실존인물이면서 <취취전(翠翠傳)>에서 취취가 김정(金定)을 그리워하다가 죽음에 이르러 보낸 시 가운데에서 나란히 언급되는 것이다.²¹⁾ 이는 『전등신화』에 대한 이생과 초옥의 독서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면서, 전기소설의 전통 안에서 전고를 끌어옴으로써

19) 『포의교집』, 161쪽. “無關也. 妾與郎君, 如此之事, 一洞所共知也. 有何變出?”

20) 『포의교집』, 167쪽. “... 妾必欲效綠珠碧玉之事, 故, 欲死而無悔也.”

21) <포의교집>의 『전등신화』 수용에 대해서는 “엄태식, 『한국 고전소설의 『전등신화』 수용 연구 - 전기소설과 문유록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167, 2014, 170~171쪽” 참조

초옥의 행동과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현실 윤리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쓴 초옥의 투쟁 직후, 이생은 어처구니없게 장중약(張仲約)과의 관계를 주선하여 초옥을 깊은 절망으로 빠뜨리고 만다.

초옥은 이생을 여색(女色)을 탐하지 않는 대장부라고 착각하면서, 초패왕(楚霸王), 관우(關羽), 거백옥(蘧伯玉), 복자하(卜子夏)처럼 늙음하고 절개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들만큼 인품있는 남성인 이생과 지우의 관계를 맺은 것에 기뻐했던 것이다. 사실 “… 탁문군이 사마상여를 만나려고 북당에서 도망나올 때 어찌 그 몸을 정결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²²⁾라고 말할 만큼, 정결의 문제는 초옥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포의지교를 통해 이생을 소진이나 한신(韓信)과 같이 큰 인물이 되게 하고 자신 역시 그러한 인물과의 사귀기로 역사에 이름이 남는 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열망하는 바였으며, 이는 문인남성에 대한 모방의 감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녀의 재주를 알아봐 주는 문인지식인과의 교유가 필요했는데, 남들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생을 선택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초옥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신 공자(縉紳公子)와 부상호걸(富商豪傑)도 마다하고 보잘것없는 인물과 아무 조건 없이 사귀는 그 태도가 더욱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된 것이다. “… 만약 이낭군과 사귀지 않았다면 양낭자의 이름이 어찌 널리 아름답게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²³⁾라는 기생 순홍(舜紅)의 말은 그러한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사 내에서 이생은 욕망의 객체이자 도구적 존재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생이 나서서 중약의 관

22) 『포의교집』, 131쪽. “… 卓文君之走北堂也，豈有欲潔其身之意耶? …”

23) 『포의교집』, 183쪽. “… 若不交於李郎，則楊娘子之名，何能遺芳哉? …”

계를 주선하자 초옥의 열망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3. '초옥'이라는 소문: 서사에 개입하는 전언과 풍문들

이제 살펴볼 것은 '초옥에 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초옥의 뛰어난 시재와 포의지교가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이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을 바탕으로 서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²⁴⁾ 초옥에 관한 이야기는 전언과 풍문²⁵⁾을 통해 그 편폭이 확장되고, 이는 서사의 역동성을 이끌어낸다.

마흔이 넘고 글재주도 없는 이생은 세력 있는 집안과 연을 맺어 벼슬에 나아가 볼 요량인 시골 선비이다. 그는 함께 상경한 장진사택의 바깥사랑 서헌(西軒)에 거처하면서, 종종 장진사와 그 서오촌(庶五寸)뻘 되는 장사 선과 잡담을 나누거나 방이 가까운 당할멈과 그곳 풍속과 행랑채 사람들에 대한 대화를 한다. 장진사택 저택의 구조와 내력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이곳이 중인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남녀의 내외 풍속이 지방과 다르며 소문이 확산되기 쉬운 공간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생은 행랑채 여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초옥에 대해 당할멈에게 묻는다. 초옥도 이생에 대해 물었다는 것이 계집종 달금에 의해 이생에게

24) 픽션인 작품의 현실 속에서 소문이 비약되는 정도는 소설을 진행시키는 추동력이다. 왜냐하면 목소리들이 서로 대립되거나 서로 논쟁을 하기 때문이다. 떠도는 갖가지 소문의 목소리는 소설 속 이야기의 소재가 된다. 그러한 문학은 사실의 허구화 과정을 예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말하자면 문학은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해준다. (Hans-Joachim Neubauer, 박동자·황승환 옮김, 『소문의 역사: 역사를 움직인 신과 악마의 속삭임』, 세종서적, 2001, 188쪽.)

25) 소문은 전해지는 소식이라는 내용적 측면으로, 풍문은 소식을 퍼뜨리는 매체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Hans-Joachim Neubauer(2001), 앞의 책, 92쪽 참조)

전해진다. 이때 곁에 있던 장사선이 이생을 충동질하고, 이생은 이에 이끌려 초옥에게 말을 걸게 된다. 이를 본 당할머니가 끼어들어 초옥의 평소 태도와 이생에 대한 태도가 다름을 알려주고, 이생은 이로부터 초옥을 향한 마음을 멈추지 못한다. 이생의 내면이 제시되는 것은 타인으로 인해 그가 위화감 또는 열등감을 느끼는 지점에서다. 그가 줄곧 신경 쓰는 것은 초옥과의 관계 자체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다. 이생은 주변인이나 시정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에 따라 초옥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장진사택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점차 두 사람의 관계에 흥미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가십(gossip)’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점은 ‘양파(楊婆)’라는 별명의 사용에서 잘 드러난다. 초옥을 마음에 둔 이생이 이를 숨기기 위해 양씨집 며느리인 초옥을 장난스럽고 은밀하게 명명한 것이다. 그런데 소문이 퍼져 주변인들, 그리고 시정 사람들까지 모두들 초옥을 양파라고 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양파라는 명명이야말로 풍문 속에서 만들어진 초옥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소문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는 남녀 수작에 능란하다고 묘사되는 장사선이다. 이생과 운우지정(雲雨之情)을 나눈 다음날 초옥은 버선을 지어 거리낌없이 이생에게 던지고, 이를 알아챈 장사선에 의해 둘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장사선이 양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에게 재미를 붙였다네.” 그들이 양파를 바라보고 찬탄하며 말했다. “그 향기라면 한 번 가까이 할 만하군요. 그런데 이형께는 과분한 걸요.” 장사선이, “저쪽에서 먼저 좋다고 온걸.” 하니, 젊은이들이 말했다. “이형에게서 취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럴까요?” 이 이후로, 그들은 이생이 양파와 사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²⁶⁾

26) 『포의교집』, 134쪽. 士先指楊婆曰：“爲彼着味。”諸生望見嘉之曰：“可宜一接其香。”

이생의 동료들은 '가인(佳人)과 우부(愚夫)'의 관계에 흥미를 느껴 초옥과 이생의 서사에 개입하게 된다. 과거 공부를 위해 산사(山寺)에 머물던 이생 앞으로 초옥이 보낸 음식들과 시가 도착하자, 동료 유생들은 그 시를 이생이 볼 수 없게 숨겼다가 승려 보항(寶恒)의 제지로 이생에게 돌려주고서 함께 돌려 읽는다.

시를 읽은 뒤 이생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다문 채 넋이 나가서 멍하게 있었다. 여러 사람들도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고, 그 중에는 부러워 침을 흘리는 자들도 있었으며, 투덜대는 사람들도 있었다. … 동료들이 각자 그 시에 차운하여 보내자고 했으나, 그 중에 있던 민 참봉이 그래서 안 된다고 역설하여 이생만 화답하는 시를 썼다. … 민 참봉이 말했다. “재주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이렇듯 대단하구나. 내 비록 양파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늘 그 절묘함에 대해 듣기야 많이 들었지. 이제 그 시를 보니 자네가 온통 그 생각뿐인 게 당연하구려.” 여러 동료들이 그 시 읊기를 그치지 않으니, ‘동방 외로운 잠자리에 달 밝은 가을’이라는 구절이 온 절 안에 퍼졌다. 그러나 이생은 ‘보낸 물건이 분명 오십 냥은 넘을 텐데, 어떻게 값는다지?’ 하는 생각뿐이었다.²⁷⁾

보잘것없는 이생이 아름답고 시도 잘 짓는 초옥과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되자 동료들은 이를 감탄하거나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도 한다. 차운하여 시를 보내자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이생은 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然，於李兄則過望也。”士先曰：“彼先樂從也。”諸生曰：“有何所取而然耶？”自此，始知生之相交於楊也。

27) 『포의교집』, 139~142쪽. 覽得，李生目瞠口噤，魂不付身，如在虛暎中。諸生莫不嗟嘆，其中流涎者數人，語多不平。…僚友情願，各次其韻并送之，其中閔參奉，力言不可，只以李生詩和答焉。…閔參奉曰：“以才之動人，如此之甚耶。吾雖不見楊婆之貌，每多聽聞之妙。今見其詩，宜吾兄之思服也。”諸益誦其詩不已，洞房孤枕月明秋之句，浮於寺中矣。然，李生念其所送之物，則必五十餘金也。何由以致報乎？

시를 쓴다. 동료들은 초옥의 시에 감탄하여 그 구절을 외우기까지 하지만, 이생만은 보향이 초옥이 보낸 술과 안주에 답하라고 준 모시, 비단, 부채 등의 값을 생각하면서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이는 초옥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스러운 감정으로 연결된다. 즉 다른 인물들의 개입으로 상대에 대한 감정까지 변화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초옥이 남편에게 수난을 당하는 부분²⁸⁾은 이생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흥미롭다. 이생이 산사에 머물다 장진사택으로 돌아오자, 그 사이 발생한 행랑채의 소동을 청지기 영필(永必)이 귀뜸한다. 얼마 후 달금이 와서 초옥의 시조카인 희(喜)가 초옥의 통정(通情)을 고자질하여 초옥의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이생에게 피해를 입힐 것 같으니 몸을 피하라는 내당(內堂)의 경계를 알린다. 점층적으로 행랑채 소동의 전말이 전달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당할멈이 와서 긴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초옥의 남편이 행랑채의 수군거림을 듣고 의심하던 차에, 양파가 오히려 말과 표정에 감정을 드러내며 시를 쓰기까지 하자 조카인 희가 와서 마침 일러바쳤다는 것이다.

초옥의 남편은 한문을 몰랐기 때문에 초옥의 편지를 길에 들고 나가 다른 마을에 사는 한 선비에게서 언문(諺文)으로 된 풀이를 얻는다. 이 익명의 선비는 시만 보고도 초옥에게 반하여 그녀를 만나게 해달라며 초옥의 남편을 따라온다. 이는 초옥에 대한 남편의 화를 돋우고 초옥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만든다. 당할멈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이 일화는 초옥의 시 짓는 재주와 지우에의 열망에서 시작된 ‘초옥 이야기’가 시정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초옥과 이생의 관계는 초옥의 시에 감동한 다른 등장인물들의 개입으로 인해 그 긴장감과 몰입도가 변화하게 된다. 과거 이후 고향으로

28) 『포의교집』, 142~146쪽.

내려가려는 이생에게 친구들은 집을 얻어 초옥과 살림을 차리라고 권하지만, 이생은 자신의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때 친구들의 경고는 자기지시적 예언처럼 이생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반드시 봉변을 당할 것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예쁘고 재주가 그렇게 아름다우니 끝내 행랑에서 오래 썩을 여자는 아니지요. 지난 번 편지를 본 젊은이 중에 군침을 흘리던 자가 많았으니, 어찌 흥계를 꾸며 먼저 차지하려는 자가 없겠습니까?”²⁹⁾

초옥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이생은 장진사의 조카이자 자신보다 젊고 부유한 중약이 초옥에게 관심을 보이자, '행랑의 물건[入廊之物]'이라 말하며 쉽게 초옥을 포기한다. 이생은 초옥과 약속한 10월을 지나쳐 11월에 상경한다. 이제 그는 중학(中學)의 하급관리이자 안동(安洞) 민궁(閔宮)의 문객(門客)이 되었다. 이생은 중약과 초옥의 관계를 의심하여 장진사택에 찾아가지 않다가, 길에서 만난 장진사에게 이끌려 그 집으로 간다. 여러 하층민들이 모여들던 중문(中門)은 비어 있고 자신이 머물던 서헌은 닫혔으며 당할땀 역시 길가로 옮겨 살며 콩죽 장사를 하게 되었다. 또 새로운 손님이 드는 등 여러 변화가 생겼지만, 행랑채에서는 여전히 이생과 초옥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다. 달금과 장사선은 이생에게 같은 자리에서 번갈아가며 초옥의 소식을 전한다.

중약이 웃으며 행랑 사내들이 하던 이야기를 하자, 달금이 또 술을 내고 웃으며 말했다. “양파가 몹시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장사선이 말했다. “양파는 이미 중약에게 붙었는데, 네 어찌 애타게 기다렸다고 속이는 게

29) 『포의교집』, 149쪽. “然則, 彼女必逢變也. 其色如此之艷, 而其才如此之美, 終非久屈於廊下之物. 向者, 看書少年流涎者多, 豈無凶計之着鞭者乎?”

냐?” … 이생은 장사선의 말이 빈말이 아닐 것이라고 여기고 의심하여 다시 묻지 않았다. … 달금이 말했다. “양파는 한번도 안사랑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분명 이서방님 때문일 겁니다.” 장사선이 이생에게 말했다. “양파의 마음은 이미 형을 떠났는데, 형 생각은 어땠소?” “길가의 우물을 어찌 혼자 마실 수 있겠소? 하물며 본디 내 물건이 아니었는데, 뭘.”³⁰⁾

초옥이 이생을 그리워했다는 ‘진실’을 전달하는 달금의 말과, 초옥이 이미 중약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짓’을 전달하는 장사선의 말이 교차된다. 초옥을 ‘길가의 우물’에 비유하는 이생의 말은 초옥과 사랑을 나누었던 당사자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시정의 풍문 속에서 떠들어대는 제3자의 목소리와 닮아 있다. 이생이 초옥의 답신을 숨기는 것을 본 중약 등 여럿이 이생을 붙들어 편지를 빼앗고, 초옥의 편지는 또 공개되어 버린다. 이생은 초옥의 시가 다른 시에서 끌어모은 것이라며 깎아내린다. 양파와 이생 사이를 노래하듯 떠들어대는 행랑채 사람들의 말과 초옥의 시에 중약의 질투가 폭발한다. 중약은 사선과 모의하여 초옥을 꼬드기고자 한다.

장사선은 본래 남을 꼬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 … 너는 그 예쁜 얼굴에, 재주 또한 아름답더구나. 지난번에 이생에게 보낸 시를 보니, 정말 감탄할 만하더군.” “어떻게 그 시를 보셨습니까?” 장사선이 먼저 이생을 들먹거리야만 양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이생이 네 시를 사방에 자랑하고 다니는 바람에 너를 기특하게 여겨 침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느니라.” 양파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서방님이

30) 『포의교집』, 151~152쪽. 仲約亦笑，而入內私廊，果見李生在座。仲約笑道廊漢之語，達今又進酒而笑曰：“楊婆苦待矣。”士先曰：“楊婆已付於仲約，汝何以苦待之說欺之乎？”…然，李生以士先非虛言，致疑而不復問焉。…達今日：“楊婆一不入內矣，今忽來到，必因李書房主而然也。”士先曰：“楊婆之心，已分於兄，兄何以爲意耶？”生曰：“路邊井鑿，豈何獨飲？況本非我物乎！”

그렇게 경술하신가요?”³¹⁾

장사선은 이생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초옥에게도 이생이 그녀의 시를 사방에 자랑하고 다녔다고 거짓을 전한다. 초옥은 이생이 그렇게 경술하냐고 물으면서도, 중약과의 만남을 끝내 거절해 장사선에 의해 행랑채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생만은 이 소동을 모르는 채로 점점 초옥에 대한 의심만 키워가게 된다. 그리하여 초옥이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고 자결하려 할 때도 이생은 풍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사오 일 동안 이렇게 하니 거리마다 욕하는 얼굴이고 사람들마다 욕하는 말입니다. 서방님께서 양파와 친하게 지내시면서부터 인심을 잃은 것이니, 누군들 옳다고 하겠습니까?” “양파를 가까이 한 건 나 혼자만이 아니다. 너 희대 작은 어른도 관계를 가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누구에게서 들으셨습니까?” “새문 밖 생원님이 그랬다.” “괜한 말씀이십니다. 지난 번에 생원님께서 작은 어른을 위해 양파에게 다리를 뺐는데 양파가 말을 듣지 않아서 행랑에서 내쫓은 일까지 있었는데 진사님께서 말리셨지요” 이생은 그래도 씨동의 말을 믿지 않았다.³²⁾

이생은 양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장사선의 거짓말을 믿어 버

31) 『포의교집』, 155~156쪽. 士先本善誘人之徒也。乃曰：“… 汝恣色如彼，才調又美。向見寄李生之詩，極可歎賞也。” 楊婆曰：“何以見之？” 士先必先喫李生，然後，可以動之，又曰：“李生將汝之詩，誇張四方，故，人莫不奇而誕之。” 楊婆正色曰：“李書房主，如是輕率乎？”

32) 『포의교집』, 164쪽. “如是四五日，街街辱色，頭頭責聲。自書房主之親楊婆，積失人心，誰肯是哉？” 生曰：“奸楊婆者，非吾獨也。汝矣宅少郎亦相奸也。” 氏同曰：“是何言耶？聞諸誰乎？” 生曰：“新門外生員主言之耳。” 氏同曰：“空然之說也。向者，生員主爲少郎媒於楊婆，楊婆不肯，至有逐出廊外之舉，而爲進士主所挽也。” 生猶不信氏同之言。

린다. ‘새문 밖 생원님이 그랬다’는 이생의 수사법은 소문과 닮아 있다. 소문은 자기지시적이라는 사실³³⁾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생은 소문을 믿어버리는 쪽을 택했다. 그는 장사선이 사실을 실토했을 때도 믿지 않다가 달금에게 확인하고 나서야 믿게 된다.

장사선과는 반대로 달금이나 씨동, 당할멈, 초옥의 시아버지 등은 초옥의 마음이나 사건의 진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초옥을 가까이서 목격하고 돕기도 하며, 사람들이 초옥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달하고 있다. 당할멈의 경우는 양과의 거리낌 없는 행동을 비난하고 그 죄가 양과 자신에게 있다고 하며 직접적으로 초옥의 행동을 평가하기도 한다.

초옥이 목숨까지 내걸고 남편에게 항거한 사실은 씨동의 말을 통해 이생과 독자에게 전해지는데, 이것은 열녀전의 재현형식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 그 내용은 기존의 열 이데올로기와 전혀 다르지만, 형식적 면에서는 열녀전의 엄숙한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또 결구의 “... 게다가 한 참동안 낮빛이 변한 채로 있더니 잠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린 것을 보면, 세상의 관례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³⁴⁾라고 한 평에서도 초옥을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보는 분위기가 읽힌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여러 갈래의 ‘초옥 서사’ 중 일부일 것이며, 긍정적 평가에 해당한다. 어쨌든 초옥의 이야기는 풍문에 실려 눈덩이가 구르듯 빠르게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여러 가지 해석이 뒤섞여 시정에 회자되었던 것이다.

33) Hans-Joachim Neubauer(2001), 앞의 책, 285~286쪽 참조.

34) 『포의교집』, 190쪽. 鄭公輔曰: “... 且觀變乎色者良久, 低頭垂淚者移時, 則非可以俗例待之者也.”

4. 잔치와 전란 사이: 풍문, 서양 바람, 그리고 초옥

18~19세기 도시 성장과 취미 생활의 확대, 유흥 문화의 발달과 함께 소비적이고 유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면서 남녀의 애정문제는 시정의 흥밋거리로 부상한다. 19세기의 애정문학들은 사랑 담론의 소비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듯하며³⁵⁾,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에 드러나듯 사건으로서의 연애는 서울의 새로운 문화였던 것이다.³⁶⁾ 그런데 포의지교라는 명목으로 '정행(貞行)을 주장하는 초옥의 사랑이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점에서 19세기 서울의 시정에서도 낯선 것이었다.

소식이 끊겼던 이생과 초옥이 다시 만나는 것은 고종(高宗)과 민비(閔妃)의 가례(嘉禮)라는 국가적 행사의 준비 과정에서였다. 여령(女伶)으로 뽑힌 초옥은 예조(禮曹)에 기생 구경을 온 이생과 마주치게 된다. “세상에 어찌 이런 변이 있습니까? 곧장 죽자니 나라에 불충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의 명을 받들자니 지아비에게 불충하게 되는 것이니 어찌 둘 다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³⁷⁾라는 초옥의 하소연은 국가에 의해 정절 윤리의 근거가 해체되는 모습³⁸⁾을 보여준다. 서울의 오부(五部) 각 구역에 사는 양가(良家) 여자 중 시집가서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자를 여령으로 뽑아올리고, 사오백 금에 달하는 의복과 머리 장식을 자비로 대지 못하면

35) 길진숙에 따르면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에서 보여주는 남녀 애정은 이 시기의 상사가류(相思歌類) 가사와 매우 비슷한 코드를 보여준다. 문화 전반에 걸쳐 애정문제가 주요 부면으로 떠오르면서 통속적인 남녀의 애정과 애육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길진숙, 『相思歌類 가사에 나타난 사랑의 수사 - 조선 후기 사랑의 수사에 내재한 남성성/여성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380~383쪽 참조.)

36) 김경미(2009), 앞의 논문, 200쪽.

37) 『포의교집』, 176쪽. “世間豈如此變乎? 直欲致命, 則不忠於國, 欲承命, 則不忠於夫, 豈非兩難乎? …”

38) 박일용(2014), 앞의 논문, 340쪽.

비용을 감당해 줄 오입쟁이들에게 여성들의 남편될 권리를 넘기는 상황이다. 이때 목전에 닥친 것은 현실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전에 초옥이 자결하려 했을 때 이생은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명분의 문제를 깨우쳐 주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명분을 따지며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절인 것이다.

이생 역시 민공의 위세라는 현실적 힘을 빌려 초옥을 여령에서 빼내어 준다. 이때 시정의 파다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초옥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화옥(花玉)이라는 기생은 그녀에게 용렬한 선비와 몰래 사귀면서 스스로 정행이라고 여기는 것이 옳은지, 미모와 재주를 지니고도 왜 기생이 되지 않는지, 또 어찌 구구하게 얽매여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는지를 묻는다. 초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해와 달이 비록 이지러진다 해도 밝음에 무슨 손상이 되며, 강과 바다가 비록 탁해진다 해도 크기에 무슨 해가 됩니까? 저의 언행이 비록 칭찬 받기에는 부족하지만 또한 정절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뜻을 변치 않는 까닭에 그 행동이 비록 동떨어진다 해도 본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말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까닭에 섬기는 바가 비록 그르다 해도 또한 하늘의 도를 어긋지는 않았습시다. … ”³⁹⁾

“ … 그러므로 공자께서 『춘추』를 지어 말씀하시기를, ‘나를 죄주는 것도 『춘추』요, 나를 알아주는 것도 오직 『춘추』로대라고 하셨던 것이구요. 지금 내 행동을 죄주는 자가 없을 수 없고, 나를 알아주는 자도 없을 수 없겠지요.’⁴⁰⁾

39) 『포의교집』, 181쪽. “日月雖蝕, 何損於明, 河海雖濁, 何害於大? 吾之言行, 雖不足稱道, 亦何害於貞耶? 志不變常, 故, 其行雖迂, 可以續原也, 言不悖理, 故, 所事雖非, 亦不違天也. … ”

40) 『포의교집』, 182쪽. “ … 故, 聖人作春秋曰, ‘罪我者其唯春秋, 知我者其唯春秋乎.’ 今, 吾之所行罪之者, 不可無也, 知之者不可無也.”

이는 초옥의 자결을 이생이 말리러 가서 “... 너의 곧은 행실은 나만 알지, 그것을 알아주는 이 또 누가 있겠느냐? ... 참고 구차히 살아남으면 오명을 씻을 날이 있을 것이니, 오명을 씻은 후에 대로에서 소리를 지르고 죽으면 되지 않느냐.”⁴¹⁾라고 했던 말에 대한 응답에 해당한다. 초옥은 나름의 명분을 밝히고 『맹자(孟子)』의 구절을 인용해 성인(聖人)과 『춘추(春秋)』를 언급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초옥은 전도된 현실에서 권도(權道)로 자신을 합리화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권도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⁴²⁾, 이생과 민궁 사람들에 의해 낭만적으로 해결된 여령 문제와 같은 현실적 차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허약한 것이었다.

기생들과의 대화는 초옥에게 직접 자신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화옥과는 끝내 의견이 다르긴 했지만, 순흥에 의해 흥겨운 분위기 속에 갈등이 무마되며, 초옥은 기생들이 자신을 위해 노래해 준 것을 고마워한다. 잔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생들이 등장하여 당대 시정에서 유행하던 시와 노래를 읊는 이 장면은 경복궁 중건과 고종의 가례 등 나라의 큰 행사와 맞물린 들뜬 분위기를 보여준다. 초옥 스스로도 “... 8년 전쟁 뒤에 (한 고조 유방이) 남궁에서 큰 잔치를 연 것이나 <춘향가>의 어사 출도 대목이 이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어요?”⁴³⁾라고 언급하고 있듯, 여령으로 뽑혀 곧 실절할 뻔 했다가 이생 무리의 도움을 받아 벗어나는 장면은 서사적으로 절정에 해당한다. 또 초옥의 인생에서도 가장 아여 빠르게 치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는 때이다. 소문으로

41) 『포의교집』, 166쪽. “... 娘之貞行, 吾獨知之, 有誰知之耶? ... 隱忍苟活, 自有洗身之日, 然後, 大聲而致死于街路, 可也.”

42) 정한국(2007), 앞의 논문, 238쪽 참조.

43) 『포의교집』, 179쪽. “... 八年兵後, 南宮大宴, 春香歌裡御史出道, 何以加此?”

떠돌던 초옥이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났으며, 이 자리는 ‘초옥에 관한 소문’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다.

함께 있던 민궁 사람들도 초옥의 재주와 지조에 감화되어 그녀를 각듯이 대우한다. 이생은 초옥과 함께 민궁을 구경하던 중 감구당(感舊堂), 즉 감고당(感古堂)의 현판이 임금님 글씨라고 알려준다. 이 현판은 폐위되었을 때 이곳에서 머물렀던 인현왕후(仁顯王后)를 기려 훗날 영조(英祖)가 내린 것이었다. 고난을 견디고 복위되었던 인현왕후처럼, 초옥이 민궁 사람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감고당 구경을 하는 것은 그녀의 ‘정행’에 주어진 포상이다. 초옥은 이생이 자신을 사방에 자랑한 걸 알 수 있겠다고 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뿌듯해한다. 이는 자신이 인정받고 이해받았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 뒤에 바로 혼란과 소식의 단절이 제시된다. 소문이란 “중중닥쳐올 사건의 그림자”⁴⁴⁾인 듯, 들뜬 잔치 분위기 이후 초옥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4월에 이생이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6월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때는 서양 오랑캐의 소문이 매우 급박하던 때라 서울의 여러 집들이 난리를 피해 시골로 내려갔다. 양파의 집도 그 중 하나여서 그 이후로는 영영 소식이 끊겼으니 ‘서양 바람에 날려갔다’고 할 만하다. 이생도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 후 중약과 영필에게서 들으니 양파와 중약은 비록 정을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 뒤 서로 만나면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양파가 본 남편을 버리고 어디 떨어져 사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지?⁴⁵⁾

44) Hans-Joachim Neubauer(2001), 앞의 책, 226쪽.

45) 『포의고집』, 190쪽. 四月, 生下鄉, 六月, 復上京. 而時洋賊之報甚急, 京師諸家皆避亂于外鄉. 楊婆之家亦在其中, 從此永斷, 可謂飛去西洋風矣. 李生亦下鄉, 未

이 작품의 배경으로 고종 즉위 초반의 경복궁 중건(1865~1868), 병인년(1866) 봄에 있었던 고종과 민비의 가례, 프랑스군과의 교전인 병인양요(丙寅洋擾) 등이 서사 내에서 언급된다. 문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병인년 1월부터 대원군에 의해 시작되었던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 등도 시대적 분위기로 깔려 있을 성싶다. 이 시기는 500년을 이어온 조선이 내부의 체제 정비와 외부의 서양 바람에 의해 변화를 겪던 시절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여러 소문과 함께 오는 것이었다. 가령 1860년 영·불연합군에 의한 북경(北京) 함락이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으로 수많은 풍문과 함께 알려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문은 해석을 하고 해석을 요구하기도 한다. 소문은 진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미를 만들어 낸다. 소문은 상징적이고 공공적이면서 해석 가능한 기호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불안과 증오 같은 감정을 투사하거나 희망을 반영할 수도 있다. 소문과 풍문을 접한 사람은 해석의 과정, 즉 집단적 의미 생성에 동참하는 것이다.⁴⁶⁾

초옥 서사는 전언과 풍문으로 쌓아올린 서사이다. 유부녀와 유부남의 떠들썩한 연애, 신분을 넘은 자유로운 사귄, 남성문인을 모방하는 하층여성, 독특한 정절론과 열녀전 비틀기, 초옥에 대한 다양한 해석 등은 지난 시간 조선을 지탱해오던 전통적 규범이 현실적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들을 보여준다. 19세기 서울 시정의 사람들은 전언과 풍문을 통해 초옥이라는 새로운 인물 형상을 만들어 내는 데에 동참했다. 초옥의 윤리 의식과 명분, 그리고 현실 인식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순은 '초옥 서사'가 소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

知將來之如何耳。其後，聞於仲約及永必，則楊婆與仲約，雖未通情，後相面甚款矣。又言楊婆背本夫，而不知下落，是誠然乎？

46) Hans-Joachim Neubauer(2001), 앞의 책, 219~220쪽 참조.

옥은 풍문이 만들어낸 형상과 같았고 그녀의 후일담도 풍문으로 전해진다. 남편과도 헤어지고 중약과는 잘 지낸다는 소식이다. 아마 중약은 이후 초옥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던 것 같고, 초옥도 태도를 바꾸어 중약과 포의지교를 맺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궁금증을 갖게 한다. 사람들의 ‘말’ 안에서 전해지던 초옥이라는 소문은 서양 바람이라는 더 크고 무시무시한 소문에 날아가고 말았지만, 초옥에 대한 또다른 전언과 풍문으로서 <포의 교집>이라는 소설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작자 미상, 『布衣交集』,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 - 절화기담, 포의교집』(개정판), 도서출판 여이연, 2016(초판 2003), 1~255쪽.
- 하성란 옮김, 『포의교집(布衣交集)』, 지식은만드는지식, 2016, 1~322쪽.
-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도서출판 월인, 2003, 1~358쪽.
- 권도경, 「『포의교집』의 애정갈등과 비극적 결말의 현실적 의미」, 『국어국문학』 132, 국어국문학회, 2002, 153~186쪽.
- 권도경, 「근대 이행기 한문소설 『포의교집』에 나타난 여성의 몸 - 몸의 주체성 실현 양상과 그 의미」, 『인문연구』 47,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231~260쪽.
- 길진숙, 「相思歌類 가사에 나타난 사랑의 수사 - 조선후기 사랑의 수사에 내재한 남성성/여성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355~387쪽.
- 김경미,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0, 203~234쪽.
- 김경미, 「서울의 유교적 공간 해체와 섹슈얼리티의 공간화 - 19세기 소설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183~208쪽.
-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쟁점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29~357쪽.
- 김문희, 「<절화기담(折花奇談)>과 <포의교집(布衣交集)>에 재현된 한양과 사랑의 의미」, 『서강인문논총』 2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5~32쪽.
- 김수연, 「<포의교집> 주인공 초옥의 反烈女적 성격」,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215~243쪽.
- 김정숙, 「<포의교집>의 소설적 특징과 전기소설 패러디적 면모」, 『조선후기 재가인소설과 통속적 한문소설』, 보고서, 2006, 247~268쪽.
- 박길희, 「19세기 소설에 등장하는 하층여성의 일탈과 그 의미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을 중심으로」, 『배달말』 57, 배달말학회, 2015, 131~160쪽.
- 박일용, 「<포의교집(布衣交集)>에 설정된 연애 형식의 전복성과 역설」, 『고소설

- 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315~347쪽.
- 신상필, 『한문소설 『布衣交集』 연구』, 『한문학보』 3, 우리한문학회, 2000, 411~432쪽.
- 신상필, 『傳奇小說의 일상성과 내면응시를 통한 조선후기적 변주』, 『대동한문학』 35, 대동한문학회, 2011, 71~97쪽.
- 엄태식, 『한국 고전소설의 『전등신화』 수용 연구 - 전기소설과 풍유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155~187쪽.
- 윤재민, 『조선(朝鮮) 후기(後期) 전기소설의 향방(向方)』, 『민족문학사연구』 15, 민족문학사학회, 1999, 12~38쪽.
- 윤채근, 『『포의교집』에 나타난 근대적 욕망 구조 - 안티고네적 희생과 히스테리 사이-』, 『청람어문교육』 35, 청람어문교육학회, 2007, 223~247쪽.
- 이상구, 『17~19세기 漢文小說의 전개양상』,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23~60쪽.
- 이숙인, 『갈등하는 기억과 상상 - 역사인물 허난설헌(1563~1589)』, 『여/성이론』 25, 도서출판 여이연, 2011, 207~222쪽.
- 이승복, 『한문소설 <布衣交集>의 인물 형상과 소설사적 의의』, 『규장각』 2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123~139쪽.
- 이월영, 『『布衣交集』 研究』, 『한국언어문학』 67, 한국언어문학회, 2008, 273~298쪽.
- 이정원, 『『布衣交集』의 서사적 성격』, 『어문연구』 3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297~317쪽.
- 이지하, 『고전소설에 나타난 19세기 서울의 향락상과 그 의미』, 『서울학연구』 36,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9, 165~190쪽.
- 정출현, 『<향량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매카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127~163쪽.
- 정출현,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2006, 35~63쪽.
- 정환국, 『『楚玉』과 '옹녀' - 19세기 비극적 자아의 초상』, 『한국문학연구』 3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215~245쪽.
- 조혜란, 『<布衣交集> 여성주인공 초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189~223쪽.
- 조혜란, 『19세기 애정소설의 새로운 양상 고찰 -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을 중

- 심으로-,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279~304쪽.
- 하성란, 『『布衣交集』의 삽입시 연구』, 『한국문학연구』 3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소, 2010, 191~219쪽.
- 한의승, 『『布衣交集』의 문체와 서사적 특징』,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397~436쪽.
- 허정주, 『『포의교집(布衣交集)』의 '근대성'에 관하여』, 『건지인문학』 3,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195~216쪽.
- 홍인숙, 『열녀 담론의 새로운 독해 - 성과 계층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85~118쪽.
- 홍인숙, 『난설현이라는 '소문'에 접근하기 - 유선시(遊仙詩)의 정신분석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125~160쪽.
- Hans-Joachim Neubauer, 박동자·황승환 옮김, 『소문의 역사: 역사를 움직인 신과 악마의 속삭임』, 세종서적, 2001, 1~294쪽.

ABSTRACT

Composition Process of 'Cho-ok narration' in <Po-eui-gyo-jip>
—With a Special Emphasis on Rumors about Cho-ok—

Lee, Ju-young

This study defines the narration of <Po-eui-gyo-jip(布衣交集)> as that about 'Cho-ok(楚玉)' and investigated the process to compose it.

Cho-ok is the character who tries to actively expose and achieve her desire. She has been aspiring to have 'Po-eui-ji-gyo(布衣之交)' with a true classical scholar and hoped that her materials of poetry will be recognized. This aspiration has been formed by the Chinese classics such as histories, Confucian scriptures, collections of poems and romance novel(傳奇小說). Her envy for female poets such - for example, Heo Nan-seol-heon(許蘭雪軒) - as well as her history as a maid of honor influenced her inner world and formed her identity.

The friendship between Cho-ok and Lee-Saeng(李生) is intervened by messages and rumors of surrounding people. Through this, her materials of poetry, the characters' words and behaviors and whole story about Cho-ok are disclosed. The images of Cho-ok, who is outstanding for appearance and talent, are defined and composed by the perspectives and words of people. However, both the message and rumor include the truth and falsehood, and Lee-Saeng sometimes believes falsehoods about Cho-ok. The surrounding people incites the characters to make a selection, directly intervenes their relationship, and cause incidents. Jang Sa-Seon(張士先) plays the biggest role among them. Even though Cho-ok dates Lee-Saeng as a married woman, she rejects the courtship of Jung-Yak(仲約) and attempts to commit a suicide, resisting against her husband. The rumor about Cho-ok becomes a famous story in the Seoul.

Lee-Saeng and Cho-ok meet again at the garden of the Ministry of

Rites(禮曹) preparing for the wedding ceremony of Emperor Gojong(高宗) and Queen Min(閔). In spite of her status as a married woman, Lee-Saeng, whose standing is raised, saves Cho-ok, who is about to lose her chastity after being selected as a 'Yeonyeong(女伶)'. In front of many people, Cho-ok makes her position clearly related to Lee-Saeng through questions and answers with giseng(妓生)s. But in the invasion of the 'Western barbarians', namely the chaos of Byengin Yangyo(丙寅洋擾), only unproved rumors about Cho-ok circulate. This is related to the unique spatiotemporal background of Seoul between Jun. 1864 and Jun. 1866. This period is in the changes by the Western invasion as well as the interior system maintenance of Chosŏn Dynasty with the history of 500 years. The 'Cho-ok narration' in compliance with these changes reveals the crack of the values that supported Chosŏn Dynasty, and the creation of this work as a novel style of 'story about Cho-ok' corresponds to messages and rumors.

Key Words <Po-eui-gyo-jip>, Cho-ok, Po-eui-ji-gyo, Message, Rumor, 19th Century, Seoul

논문투고일 : 2017. 1.15
심사완료일 : 2017. 2. 5
게재확정일 : 2017. 2.18